

필리핀 2023: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과 친미 동맹외교의 강화*

김 동 업**

국문초록

2023년 집권 2년차에 접어드는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두테르테 전 정부의 정책기조와 멀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진영과의 집권연합이 조기에 균열되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정책은 두테르테 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생활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심화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에서 봉봉 마르코스 정부로의 정권 이양은 정치·사회 분위기를 탈권위주의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필리핀 정치에서 대중적 지지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입지와 정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퇴임 후에도 여전히 높은 대중적 인기를 누리고 있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그의 딸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의 존재는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정치적 입지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

주제어: 봉봉 마르코스, 사라 두테르테, 필리핀 정치, 필리핀 경제, 필리핀 외교 정책, 한-필리핀 관계

* 이 논문은 2023학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유익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부산외국어대학교 부교수 겸 아세안연구원 원장, dykim@bufs.ac.kr.

I. 머리말

지난 2022년 대선 결과는 1986년 독재자 마르코스에 대항하여 시민혁명(People Power 1)을 이끌었던 민주화 세력의 몰락과 독재자 마르코스 가문의 부활을 의미했다. 더불어 소위 민주화 세력의 대적점에 있는 마르코스와 두테르테 두 가문의 결합과 집권은 필리핀 민주주의의 또 다른 후퇴를 의미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상은 봉봉 마르코스 정부 출범 후 오래지 않아 깨지기 시작했다. 집권 1년 차에 벌써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의 분열 조짐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집권연합의 내부 균열은 국내정치는 물론 국제관계 전반에 걸쳐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2023년 필리핀 정치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정치의 제도적 특이성에 대한 배경지식이 필요하다. 필리핀은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 중에서도 대통령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Shugart and Carey 1992: 148-166). 특히 대통령에게 부여된 정부의 예산 집행 권한은 의회 의원들에 대한 대통령의 강력한 통제 수단이 된다. 더불어 필리핀의 정당은 이념 중심의 정당이 아닌 유력 정치인과 그 가문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운영된다. 따라서 정당에 대한 구성원들의 충성도가 아주 낮으며 매번 새로운 회기마다 당적을 바꾸는 현상이 일반화되어 있다. 정치인에게는 정부 예산에 접근하기에 유리한 대통령 소속 정당 혹은 여권에 속한 정당으로 이동하는 것이 차기 선거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 된다. 이러한 정당정치의 현실은 필리핀 의회가 권력자인 대통령을 견제하기보다는 영합하는 현상으로 나타난다(김동엽 2008).

필리핀 대통령제 민주주의가 가지는 또 다른 제도적 특이성은 대통령과 부통령 후보가 한 팀으로 출마하지만 각각 따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다는 점이다. 국민이 직접 선출한 부통령은 특별한 임무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 유고 시 그 자리를 대신하는 것과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것 외에 특별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부통령의 존재는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인물로서 대통령에게는 부담스러운 견제의 대상이다. 특히 정치적 성향이 다를 경우에는 더욱 불편한 관계이다.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예의상 부통령에게 행정부의 중요하지 않은 직위나 장관직 하나를 제공한다. 이러한 필리핀 정치체도의 특이성은 선거 연합을 통해 당선된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과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 사이에 균열이 발생하는 하나의 요인이 되기도 한다.

본 글에서는 2023년 필리핀 정치의 역동성을 집권 연합의 조기 균열 현상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것을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의 특성과 연계하여 설명하였다. 이어서 집권 1년차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 정책과 대외 관계를 전임 두테르테 정부와 대비하여 설명하였다. 논지에 활용한 자료는 기존 연구를 중심으로 필리핀 정치체제의 특이성에 관하여 이해하고, 최근 정치, 경제, 국제관계에 관한 사항을 주요 뉴스나 이에 대한 해설 등을 활용하였다.

II. 국내정치 -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

과반이 넘는 유권자의 선택을 받아 화려하게 출범한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집권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벌써 집권 연합의 균열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균열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직 먼 2028년 대선에 대한 조급한 기대와 맞물려 있다. 이미 차기 대권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와 새로운 차기 대권 후보로 떠오르고 있는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이자 하원의장인 로무알데즈(Martin Romualdez)가 그 중심에 있다. 조기 점화된 차기 대권 경쟁은 하원을 장악하고 있는 로무알데즈 진영이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한 정치적 견제를 가시화하면서 본격화되었다. 특히 하원을 중심으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정치적 혹은 사법적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두테르테 진영의 반발을 샀고, 이는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권력 경쟁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집권 연합의 형성과 조기 균열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 2022년 대선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2022년 6월 30일 퇴임한 두테르테 대통령은 국내 정치와 경제 그리고 대외 관계에서 파격적인 행보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도를 누렸다. 단임제 대통령이 임기 말에 겪는 레임덕도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우 경험하지 않았고, 80%에 가까운 지지도를 퇴임 시까지 유지했다.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며 퇴임하는 대통령으로서 두테르테는 차기 정권 창출에 많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의 의도와는 달리 차기 정권 창출에 직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했다. 퇴임 후에도 제도적 범위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길 원했던 두테르테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부통령에 출마할 것을 고려했다. 또 다른 선택으로 장녀인 사라 두테르테가 대통령에 출마하고, 자기 오른팔 격인 봉고 상원 의원이 부통령에 출마하는 것을 염두에 두었다.¹⁾ 그러나 그의 생각은 후계자로 생각했던 사라 두테르테의 다른 정치적 선택으로 인해 무산되었다. 그녀는 아버지 두테르테 대통령이 약한 지도자라며 탐탁치 않게 여겼던 봉봉 마르코스의 부통령 런닝메이트로 등록했고, 마르코스-두테르테 단일팀(Uni Team)의 대선 선호도가 과반을 넘으며 여타 후보들을 크게 앞서자 두테르테 대통령은 대선 경쟁 자체에

1) 후보자 등록을 3개월 앞둔 2022년 6월 7-16일 한 여론조사 기관(PulseAsia)에서 조사한 대선 선호도 조사에서 사라 두테르테가 28%로 대선 선호도 1위를 나타냈으며, 당시 마르코스는 13%로 3위로 나타났다. 반면 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이 18%로 1위로 나타났고, 2위는 대선 후보로도 언급되던 모레노 후보가 14%를 차지했다(PulseAsia).

서 한발 물러났다.

대선 후보 등록을 앞두고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던 사라 두테르테가 대통령이 아닌 봉봉 마르코스의 부통령 후보로 결심한 데에는 두 명의 정치인이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하나는 봉봉 마르코스의 누나이자 현직 상원의원인 아이미 마르코스(Imee Marcos)이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를 필리핀 영웅 묘역(Cemetery of Heroes)에 안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두테르테 대통령에게 깊은 신뢰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라 두테르테와도 정치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Inquirer Mindanao 2021). 또 다른 인물은 전 대통령이자 현 하원의원인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Gloria Macapagal Arroyo)이다. 아로요는 사라 두테르테의 정치적 어머니로 알려져 있다. 이 둘이 다바오 시장 후보로 등록했던 사라 두테르테를 설득하여 아로요가 명예 당대표로 있는 기독교무슬림민주당(Lakas-CMD)의 부통령 후보로 출마하게 했던 것이다(Gregorio 2021).

필리핀에서 대선은 후보자의 명성과 함께 지역의 유력 가문들 간의 전국적 연합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정법모 2023a, 2023b). 필리핀에는 각 지역에 유력 정치 가문이 있으며, 전국 단위 선거에서 이들의 표 동원력은 대단히 크다. 이는 고유한 지방 언어를 중심으로 지역 정체성이 강하게 형성되어 있어서 표의 결집력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지역적으로 루손 북부의 마르코스 가문과 남부 민다나오의 두테르테 가문의 연합은 선거 승리를 위한 이상적인 조합이었다. 거기에다 루손 중부지역인 팜팡가를 거점으로 하는 아로요와 중부 비사야스 세부주의 주지사 가르시아(Gwendolyn Fiel Garcia)의 연합은 전국적인 구도를 완성한 조합이라고 할 수 있었다. 마르코스-두테르테 연합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과반을 득표한 것은 이러한 정치 가문의 전국적 연합이 있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대선이 끝나자마자 시작된 봉봉 마르코스 당선자의 각료

인선 과정에서부터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사라 두테르테는 이미 선거 과정에 자신이 부통령에 당선되면 국방장관 자리를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Galvez 2022). 필리핀에서 군부는 두 차례의 시민혁명(People Power I & II)과 같은 중요한 정치적 전환점에서 핵심 역할을 했으며, 여전히 그 정치적 영향력을 무시할 수 없는 집단이다. 이러한 군부의 주장인 국방장관은 막강한 권력과 더불어 전통적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자주 등장했다. 실제 과거 필리핀 대통령 중 막사이사이(Ramon Magsaysay)와 라모스(Fidel V. Ramos)는 국방장관 경력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된 바 있다. 차기 대권을 생각하는 사라 두테르테의 이러한 기대와는 달리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국방장관 자리에 아로요 정부(2001-2010) 말기에 국방장관을 지냈고, 2010년 대선에 여권 후보로 출마하여 낙선한 길버트 티도로(Gilberto E.G.C. Teodoro Jr.)를 임명했다. 대신, 사라 두테르테에게 교육부 장관직을 제안했으며, 그녀는 잠시 침묵으로 불만을 표시하다가 결국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했다.

또 다른 균열의 조짐은 지난 대선에서 마르코스-두테르테 팀의 후견인이나 다를 바 없었던 아로요 전 대통령이자 하원의원과 관련하여 나타났다. 동시선거인 필리핀에서 봉봉 마르코스 정부와 함께 출범한 제19대 의회의 하원의장으로 마르코스 대통령의 사촌이자 여권의 최대 정당(Lakas-CMD)의 당대표인 로무알데즈(Martin Romualdez)가 선출되었다. 아로요는 하원에서 의장 다음 순위인 선임 부의장(Senior Deputy Speaker)에 선출되었다. 필리핀 의회에서 현직 의장의 의사에 반해서 의원 과반수의 결의로 의장을 교체하는 일이 있는데, 이를 ‘의회 쿠데타’라고 부른다. 다당제이며 정당 충성도가 낮은 필리핀 의회 현실에서 이러한 시도는 종종 일어난다.²⁾

2) 지난 두테르테 정부 때인 2018년 7월에도 의회 쿠데타가 발생했다. 당시 두테르테

2023년 5월 17일 필리핀 하원에서 갑자기 아로요 의원의 선임 부의장 직위를 박탈하는 결의안이 통과되었다. 그 이유로는 아로요와 일부 의원들이 로무알데즈 의장을 몰아내는 의회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것이었다. 여기에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아로요는 쿠데타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지만, 5월 19일 사라 두테르테가 로무알데즈가 당대표로 있는 Lakas-CMD에서 탈퇴함으로써 양측 간의 분란을 기정사실화 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차기 대선 경쟁에서 사라 두테르테의 경쟁자로 로무알데즈가 급속히 주목을 받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사라 두테르테는 공개적으로 로무알데즈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De Leon 2023).

한편,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와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첫 사례는 두테르테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을 비판했다가 투옥되어 수감 생활 중인 전 아키노 정부(2010-2016) 검찰총장 출신 상원의원이었던 데 리마(Leila de Lima)가 6년 만에 보석으로 풀려난 것이었다. 그녀는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필리핀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상징적 인물로 간주되었으며, 필리핀 국내는 물론 미국을 포함한 서방세계 인권단체들의 두테르테 정부에 대한 탄원과 압력의 이유가 되기도 했다. 이와 더불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더욱 압박하는 것은 ‘마약과의 전쟁’과 관련하여 저지른 인권 유린에 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International Criminal Court)의 조사이다. 두테르테 집권 시에는 필리핀 정부에서 ICC 조사단의 입국조차 거부하였으며, 더 나아가 ICC의 설립 근거가 되는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알바레스(Pantaleon Alvarez)가 의장으로 있었는데, 그는 당시 다바오시 시장이었던 사라 두테르테가 추진한 지역 정당인 HNP(Hugpong ng Pagbabago)에 반대한 인물이었다. 당시 분쟁에서 사라 두테르테는 하원 의원들을 동원하여 알바레스를 몰아내고 아로요를 의장 자리에 올렸다. 이 사건은 사라 두테르테가 전국적으로 영향력 있는 정치인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

로마협약(Rome Statute)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집권 초기 ICC에 의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조사를 허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원에서 ICC에 복귀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오는 등 다양한 압력이 있자, ICC 복귀를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뿐만 아니라 두테르테 정부 시절에 발생했던 권력 남용, 부정부패, 언론탄압 등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하원을 중심으로 점차 높아졌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전방위 압박과 더불어 사라 두테르테 부통령에 대한 공격도 본격화되었다. 그녀에 대한 공격은 주로 정부 예산에 대한 부적절한 사용과 관련이 있다. 이는 그녀의 이미지를 부패한 정치인으로 몰아 대중의 높은 인기도에 타격을 주기 위함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그녀가 장관으로 있는 교육부에서 온라인 수업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한 태블릿 PC가 시중 가격보다 훨씬 높게 책정되었고, 적절한 입찰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사원(Commission on Audit)의 조사를 받았다(Galvez 2022). 둘째로는 2022년 후반부에 그녀가 사용한 특수활동비(confidential fund, 이하 특활비) 1억2천5백만 페소에 관한 것이다. 당시 부통령실에는 배정된 특활비가 없었는데 대통령실로부터 본 특활비가 흘러들어왔고, 이 특활비가 아무런 증빙도 없이 11일 만에 모두 지출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그 사용처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는 목소리에 대해 사라 두테르테는 침묵으로 일관했다(Manalang 2023).

한편, 의회에 제출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에 사라 두테르테의 책임 하에 있는 부통령실과 교육부에 총 500만 페소의 특활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의회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다. 의회에서 부통령실이 신청한 특활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사라 두테르테는 그러한 의원들에 대해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국가의 적”(enemy of the state)이라 반격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의 강

력한 반대와 함께 각종 논란에 휘말린 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까지 나왔다. 특활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대중들 사이에 번지자 결국 사라 두테르테는 더 이상 정치적 분열을 원하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부통령실과 교육부의 특활비를 포기한다고 발표했다(Magsambol 2023).

이처럼 자신과 자신의 딸인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에 대해 압박이 들어오자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필리핀 하원에 대해 “가장 부패한 기관”이라고 비판하며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필리핀 하원이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이며, 필리핀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각종 이권이 거래되는 장소라고 비난했다(Macasero 2023). 이러한 발언에 대해 하원 의원들 사이에 많은 비판과 동요가 일어났다. 이는 두테르테가 속한 필리핀민주당(PDP-Laban)의 의원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PDP-Laban은 두테르테 집권 시기인 제17대 의회(2019-2022)에서 집권여당으로 의원 수 123명까지 거느렸던 최대 정당이었다. 그러나 마르코스 정부 들어 대부분의 소속 의원들이 이탈하여 현재는 겨우 7명만 남은 군소정당으로 전락했다. 이탈한 많은 수의 의원들은 현 집권 여당격인 Lakas-CMD로 이적한 상태이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자신의 딸인 부통령에 대한 탄핵과 ICC의 조사에 대한 압박이 가시화될 경우, 자신이 직접 2025년 선거에서 상원의원에 출마하여 정치에 복귀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Palatino 2023).

이처럼 마르코스-두테르테 집권연합의 분열은 필리핀 정치에는 다양한 정치세력이 보다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경쟁하고 비판하는 탈권위주의적 분위기를 낳고 있다. 이는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 개인의 특성이 이전 두테르테 전 대통령과 달리 덜 권위주의적이고, 무엇보다도 두테르테 전 대통령처럼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이미지와 행태를 나타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다 자유로운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변화를 가능하게 한 집권연합의 분열은

필리핀의 정치체제가 가지고 있는 특수성, 특히 가문 중심의 정치와 각자 유권자의 선택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과 부통령 간에 공유할 수 없는 권력의 속성이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필리핀에서 탈권위주의 화가 집권연합의 분열로 나타난다는 것은 필리핀 민주주의 체제가 국민 일반의 지지와 참여로 운영되기보다는 일부 정치 엘리트 그룹에 의해 주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서경교(2018, 2020)에서 볼 수 있듯이, 필리핀 대중들은 민주주의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지만 그렇다고 타협하거나 양보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로 보지는 않는다. 경제적 혜택을 위해서라면 민주주의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는 가치이며, 상황과 필요에 따라 권위주의를 택할 수 있다고 본다. 필리핀 대중들은 반드시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뿐만이 아니라, 탄핵, 시민혁명, 혹은 군부 반란과 같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음을 과거 경험을 통해 인지하고 있다. 따라서 현직 대통령이 일정 수준의 국정 지지도를 유지하는 것과 군부를 확고히 장악하는 것이 정권 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특히, 현 상황과 같이 대통령 유고시 합법적 승계자로 되어 있는 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을 경우 대통령의 지위를 흔드는 다양한 시도가 나타날 수 있다.³⁾ 2024년 필리핀 국내정치는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권력투쟁이 어떻게 전개되며, 그 와중에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다.

3) 2022년 대선 결과 봉봉 마르코스는 58.77% 득표로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사라 두테르테는 61.53%로 부통령에 당선되었다. 2023년 12월에 펄스아시아(Pulse Asia)에서 실시한 주요 정치인에 대한 국정 지지도 조사에서도 사라 두테르테는 74%의 긍정을 나타내며, 봉봉 마르코스의 68%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Magaluz 2024)

Ⅲ. 경제상황 - 경기회복과 인플레이션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2023년 1월에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하고, 번영, 포용, 탄력적인 경제·사회적 기반 마련을 위한 변화(Transformation)를 목표로 필리핀 개발계획(PDP 2023-2028: Philippine Development Plan)을 수립하여 발표했다. 이 변화의 주요 방향은 디지털화, 서비스화, 혁신생태계 구축, 연결성 향상, 중앙 및 지방정부 협력 강화, 민관협력 등을 제시하였다. 개발계획에 제시한 목표는 임기 중 경제성장률 6.5-8.0% 수준 유지(2022년 GDP성장률: 7.6%), 세계혁신지수 43위 달성(2022년 지수: 59위), 실업률 4.0%-5.0% 수준 유지(2022년 실업률: 5.4%), 빈곤율 9.0%까지 감축(2022년 빈곤율: 18.1%), 물가상승률 2.0%-4.0% 수준 유지(2022년 1월-11월 평균 물가상승률: 5.6%),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을 3.0%로 하향 조정(2022년 상반기: 6.5%) 등이다.

2023년 필리핀 경제는 6~7%대의 GDP 성장률을 보이면서 양호한 성적을 거두었다. 지난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동남아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의 마이너스 성장률(-9.5%)을 기록했고, 이듬해인 2021년에 5.7% 성장률을 나타냄으로써 탄력적인 회복력을 나타냈다. 2022년에는 7.6%의 GDP 성장률로 베트남의 8.0%에 이어 동남아 국가들 중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보였다. 이처럼 필리핀 경제의 강한 탄력성은 필리핀 산업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필리핀은 국민 총생산의 약 60%를 서비스 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소비재 유통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업구조 속에서 강력한 사회 통제를 실시했던 필리핀 정부의 대 코로나-19 정책은 경제의 급속한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반면 사회 통제가 풀리자 소비가 살아나고 또한 보상 소비심리까지 작동하면서 급속한 경기 회복세를 나타낸 것이다(Ta-asan, 2023).

봉봉 마르코스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성장 전략의 하나는 인프라 건설로서 두테르테 정부의 BBB(Build-Build-Build)정책을 창의적으로 계승하여 자기 이름의 머리글자를 딴 BBM(Build-Better-More) 정책이다. 교통망 확충, 도시 개발, 정보통신사업, 농업, 에너지, 수자원 개발 등의 분야에 총 194개의 프로젝트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중 두테르테 정부에서 추진하던 사업이 총 71개이며, 새로운 사업이 123개이다. 이미 95개의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 8개의 사업은 정부의 승인이 완료된 상태이다.

2023년 가장 큰 논란이 되었던 경제 분야 이슈로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들 수 있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 평균 물가상승률이 7.2%였으며, 2023년 1월부터 10월까지 6.4%를 기록했다. 이는 필리핀 중앙은행의 2023년 물가상승률 목표치인 2~4%를 훨씬 초과한 수치였다. 이러한 물가 상승의 요인으로는 세계경제의 불안으로 인한 국제 유가 상승과 수입 물가 상승을 들고 있다. 특히 식량과 교통비의 상승은 일반 대중들의 생활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어서 마르코스 정부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Calonzo 2023).

봉봉 마르코스 정부가 출범과 더불어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경제 정책은 물가안정, 특히 국민의 생계와 직접 연관이 있는 농산물 가격을 안정시키는 것이었다. 민생물가 안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 문제를 챙기겠다는 뜻으로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ure) 장관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자신이 그 직을 겸한다고 발표했다. 이처럼 대통령이 직접 챙기고자 했던 식료품 물가에 이상 조짐이 나타났다. 2023년 2월 초 양파 가격이 폭등하기 시작하여 불과 한 달 만에 두 배로 상승했다.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지만, 특히 2022년 8월 필리핀에 닥친 태풍, 오데트(국제명 RAI)의 영향으로 양파 수확이 현저히 줄었으며, 또한 우크

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류가격의 상승이 물류비용을 증가시켰기 때문이었다. 더불어 이 틈을 타서 사재기 등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들이 가세함으로써 양파 가격이 닭고기 가격보다 비싸지는 현상을 낳았다. 이러한 양과 수급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여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일이 닥친 후에 서둘러 수입을 확대하는 등과 같은 정부의 대책은 국민의 비난과 조롱을 사기도 했다(Ragasa 2023).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더욱 중점을 두고 챙기려 했던 것은 쌀 가격 안정이었다. 쌀은 필리핀 국민의 주식이며, 또한 국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민층의 주된 식량이기도 하다. 따라서 필리핀에서 쌀 가격은 정치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사안이다. 필리핀 정부는 주식인 쌀의 자급자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필리핀은 세계 3대 쌀 수입국이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대선 당시 시중 쌀 가격을 20페소(1kg)까지 끌어 내리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집권 후 필리핀 시중 쌀 가격이 14년 만에 최고치인 60페소(1kg)까지 올라가자 2023년 9월 5일 마르코스 대통령은 시중 쌀 가격의 상한제(1kg 당 41-45페소)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생산과 유통 비용이 증가한 가운데 이러한 쌀 상한제를 맞추기 위해 유통업자들이 농부들로부터 매입하는 쌀의 가격을 낮춤으로써 또 다른 분란을 일으켰다. 결국 쌀값 상한제 정책은 1달 만에 포기했다(Serapio Jr. 2023).

이처럼 마르코스 대통령의 민생물가 안정화 정책이 거듭 실패하자 전문가에게 농업부 장관을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대통령 자신은 다른 중요한 업무로 바쁘고 또한 전문성도 없으면서 국민의 생계와 관련된 중요한 업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다는 비난이었다. 결국 마르코스 대통령은 2023년 11월 30일 농산물 그룹 경영자인 라우렐(Francisco Tiu Laurel Jr.)을 농업부 장관에 임명했다.

또 다른 정치적 논란이 되었던 경제 이슈로는 국부펀드(Mahalika Investment Fund) 조성에 관한 것이었다. 재정 적자를 겪고 있는 필

리핀 정부의 상황 하에서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경제계와 언론에서 터져 나왔다. 국부펀드 조성에 반대하는 경제 전문가들은 정부가 재정 흑자가 있을 경우 이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의 목적으로 국부펀드를 조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필리핀은 재정 적자 상황에서 또 다른 빚을 내어 펀드를 조성한다는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운영하는 공공기금이나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끌어오는 것은 오히려 미래세대의 돈을 끌어다 쓰는 모순적 행동이라는 것이다. 경제학자이자 관료 출신인 몬소드(Winnie Monsod)는 필리핀의 공공 금융기관인 LBP(Land Bank of the Philippines)나 DBP(Development Bank of the Philippines) 등은 이미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들 기관의 자금을 융통하는 것은 한 주머니에서 또 다른 주머니로 옮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ANC 2023).

무엇보다도 논란이 된 부분은 5,000억 페소(약 11조 8천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자금을 운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느냐의 문제였다. 결국 이권을 추구하는 개인과 기업들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만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낼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국부펀드 법안은 하원과 상원의 심의를 통과하여 2023년 7월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최종 법안(RA No. 11954)이 되었다. 그러나 의회 야당 의원들은 해당 법안이 필리핀 헌법에 위반되는지에 관한 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그들은 수천억 페소의 공공자금을 익명의 펀드 매니저와 불명확한 기준으로 선출된 9인 위원회에 맡기는 것이 합당한지에 관한 헌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이러한 논란 속에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10월 12일 갑자기 본 법안의 집행을 일시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그 이유로 본 법안의 집행과 관련된 규칙(IRR)을 보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대통령이 여론에 밀려 국부펀드 계획을 포기하는 것이 아

니냐는 예상도 있었지만, 11월 24일 대통령이 콘싱(Rafael Consing Jr.)을 국부펀드 투자회사(Mahalikar Investment Corporation)의 대표(CEO)로 임명하면서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향후 국부펀드 운영과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집권 초기 민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물가를 잡는 데 실패함으로써 지지율 하락을 경험했다. 2023년 마지막 분기에 들어서면서 소비자 물가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직은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이른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2023년 4분기 여론조사에서 필리핀 국민들이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소비자 물가 인상을 들고 있는 것으로도 확인된다(Magaluz 2024). 봉봉 마르코스 정부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성장의 결실이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어지지 못할 경우, 2025년 선거 이후 급속한 권력 누수 상황을 맞이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많은 우려를 가지고 탄생시킨 국부펀드의 운영과 관련된 오용이나 남용이 나타날 경우, 대체 가능한 위치에 있는 부통령 사라 두테르테를 중심으로 어떠한 형태로든 권력 재편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IV. 대외 관계 - 친미 동맹외교의 강화와 한-필리핀 관계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출범과 더불어 대외관계 특히 강대국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인가에 많은 관심을 모았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균형 있는 외교”를 외교정책의 기조로 제시함으로써 두테르테 정부에서 소원해졌던 전통적 우방인 미국과의 관계도 복원할 것이 예상되었다. 그는 취임사에서 자신의 균형외교에 대해 “필리핀은 모두에

게 친구이며 어떠한 적도 없다”(friend to all, enemy to none)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2년 7월에 있었던 취임 후 첫 국정연설(SONA)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하여 필리핀 영토의 “한 치(one inch)도 양보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으로써 향후 어떻게 남중국해 문제를 대처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낳게 했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집권 후 1년 6개월 간 총 17차례의 해외 순방을 통해 총 12개국을 방문하는 활발한 순방외교를 펼쳤다. 이 중 미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를 3차례, 일본은 2차례 방문했다. 한 달에 1차례 이상의 잦은 해외 순방은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이 제시한 ‘균형외교’의 핵심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친중반미 외교정책과 차별성을 드러냈다. 물론 무역 파트너로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두테르테 정부 하에서 막대한 인프라 투자를 약속한 중국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도 보여줬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23년 1월 3~5일 국빈으로 중국을 방문하여 시진핑 주석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여기에서 양국 간 가장 큰 현안인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러한 양국 정상 간의 합의는 미·중 간 전략경쟁의 강화라는 국제적인 환경과 양국 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곧 그 의미가 퇴색되었다.

두테르테 정부를 제외하고 필리핀의 역대 정부 대외 관계의 기본 정책은 미-필 안보동맹을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초기인 2022년 9월 뉴욕 증권거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미국이 함께하지 않는 필리핀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우리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있어 미국의 역할이 높이 평가되고 있으며, 필리핀은 미국의 파트너이며 동맹이자 친구이다”라고 발언함으로써 이전 정부에

서 소원했던 양국 관계를 일시에 회복했다. 필리핀과 미국은 전통적인 우방으로서 그 근간에는 1947년 미군기지 협정, 1951년 미-필 상호방위조약, 1992년 미군기지 철수 후에 미군의 필리핀 내에서의 활동을 위해 체결한 1997년 방문군협정(VFA: Visiting Forces Agreement), 그리고 VFA를 더욱 강화한 국방협력강화협정(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등이 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미-필 동맹을 근간으로 한 전통적 외교정책으로의 복귀는 미국과 전략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 하여금 필리핀에 대해 불편함과 경계의 자세를 취하는 이유가 되었다. 특히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시아 지역은 지정학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이고,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는 1996년 1월 스프래틀리(Spratly) 군도 근처에서 최초로 충돌이 발생한 이래 오늘날까지 양국 관계를 가로막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 필리핀 정부는 자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을 수호한다는 의미에서 2011년 그동안 남중국해(South China Sea)로 쓰던 이름을 ‘필리핀 서해’(the West Philippine Sea)로 변경하였다. 또한 2013년에 필리핀 정부는 중국이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국제중재재판소에 남중국해 영유권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여 2016년 6월에 승소 판결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당시 막 출범한 두테르테 정부는 이 판결을 중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함으로써 양국 간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 출범 이후 필리핀과 중국과의 관계는 날로 악화되는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지난 2022년 11월 카멜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은 필리핀을 방문하여 중국과 해양영토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스프래틀리 군도와 가까운 팔라완섬을 방문함으로써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을 분명히 했다. 헤리스 부통령은 마르코스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남중국해 해양 영토분쟁에 대해 미국이 필리핀의 주권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미국이 필리핀의 안보 및 경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임을 약속했다. 해리스 부통령의 방문 이후 미국과 필리핀 정부는 새로운 EDCA 기지에 대한 논의가 급진전되어 기존에 미군이 사용하는 5개 필리핀 군사기지에다가 추가로 4개 기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2월에 승인했다. 새로운 EDCA 기지의 승인은 중국에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졌다. 이는 4개 군사기지가 모두 중국이 영토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지역과 인접한 필리핀 팔라완 섬과 루손섬 북부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이었다.⁴⁾ 팔라완섬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와 인접해 있으며, 루손섬 북부 지역은 대만과 가장 인접해 필리핀 영토이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통해 미군이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 진출을 견제하고, 또한 대만 해협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할 경우 작전 기지로 활용할 것으로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중국은 필리핀 정부의 이러한 결정에 대해 강력한 경고성 메시지를 전달하는 등 예민한 반응을 보였다 (Strangio 2023).

최근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잦은 물리적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1999년에 스프래틀리 군도 내의 아윙인 쇼알(Ayungin Shoal)에 미군이 2차 대전에 사용했던 퇴역 함정인 씨에라 마드레(BRP Sierra Madre)호를 좌초시켜 놓았다. 이 함정에는 9명의 필리핀 해병이 주둔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생필품 보급을 필리핀 민간인이 담당하고 있다. 중국은 야간에 좌초 함정에 레이저 빔을 쏘기도 하고, 생필품 보급선의 접근을 대형 해양 경비선을 동원하여 가로막기도 했다. 이러한 충돌 장면이 동영상으로 촬영되어 국내외 각종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불

4) 새로운 4개 EDCA 기지는 팔라완 섬 남부의 발라박섬, 루손섬 최 북단의 카밀로 오시아스 해군기지, 랄로 공항, 멜초 델라 크루즈 육군기지 등이다.

러일으켰고 필리핀 국민들의 대 중국 분노를 고조시키기도 했다. 필리핀 정부는 이러한 중국의 행태에 대해 외교적 채널을 통해 강력히 항의함은 물론 미국, 호주, 일본 등 우호적 주변국들과 해양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기 시작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외교정책에는 미·중 전략경쟁 심화라는 국제적 환경이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토 주권 문제는 어느 정부도 양보할 수 없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외교적 대화를 통해 현상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인 선택이다. 특히 강대국으로 부상한 중국을 상대로 분쟁을 고조시킴으로써 어쩔 수 없이 동맹국 미국에 대한 안보 의존도가 높아지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미·중 전략경쟁으로 인해 미국이 필리핀에 대한 안보협력 의지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지만, 과거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고 보장하기 힘들다. 1996년 남중국해에서 인공섬을 건설하기 시작한 중국과 필리핀이 해상에서 대치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미국은 해상 무력충돌을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봐야 할지에 대해 고민하는 등 모호한 태도를 취한 적이 있었다(Storey 1999).

정치적 이해관계의 측면에서 두테르테 정부의 친중반미 외교정책과 분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의 외교정책은 득과 실이 명확히 구분된다. 중국의 강압적인 태도에 대해 강력히 맞서는 모습은 우방국의 지지를 이끌어냄은 물론 국민의 반중 정서와도 일치함으로써 국정 지지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과의 관계 악화는 경제적 측면에서나 안보적 차원에서 다양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 특히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필리핀 경제에 악영향을 미쳐 국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또한 중국과의 잦은 해상 충돌이 실제로 사상자가 발생하는 상황까지 악화될 경우 오히려 사회적 불안을 조장하며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향후 집권연합이 분열하여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이 본격적으로 경쟁하게 될 경우, 남중국해 문제를 둘러싼 경제·안보적 실익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필리핀의 최대 외교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은 “국제법의 준수와 무력에 의한 현상유지 변경 반대”라는 원론적 차원에 머물러 있다. 2023년 8월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양경비선이 필리핀 해양경비선을 향해 물대포를 발사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주필리핀 한국 대사관 명의로 “긴장고조에 대한 우려”와 함께 “평화와 안정 그리고 규칙기반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는 글을 올렸다. 외교부 본부가 아닌 재외공관 차원에서 올린 글이며, 또한 중국을 언급하지 않은 측면은 있지만,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직접 언급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 예외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김효정 2023).

한국과 필리핀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지역 내에서 중국과 충돌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형태로든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한국과 필리핀은 전략적 동반자로서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최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하여 필리핀은 미국, 호주, 일본 등의 국가들과 공동 해상순찰과 같은 형태의 해상안보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에 대한 견제의 의미가 크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와 같은 해상안보 협력에 한국이 직접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2023년 10월 한-필리핀 2차 해양대회에서 “해양안보협력 MOU 체결”에 합의함으로써 향후 다양한 차원에서 해양협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김지연 2023).

필리핀은 동남아시아 국가 중에서 최초로 한국과 수교를 맺은 국가로서 2024년은 한-필 수교 75주년이 되는 해이다. 양국 관계는 안보적 차원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 차원에서도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2023년 9월 7일 한-필리핀 FTA가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교류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양국 간에 전기차 및 친환경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한국의 對필리핀 유상원조(EDCF) 규모의 확대에 의한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한국과 필리핀 간에는 많은 인적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하기 전인 2019년에 필리핀을 방문한 한국인 입국자 수가 180만 명을 넘어 외국인 입국자수 1위를 차지했다. 코로나-19 이후 그동안 침체되어 있던 인적교류가 본격적으로 되살아나 2023년에는 약 143만 명의 한국인이 필리핀에 입국하여 다시금 외국인 입국자수 1위를 나타냈다고 필리핀관광청이 밝혔다(이창호 2024). 반면 필리핀은 한국에 대해 인력 파견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한국에 거주하는 필리핀인은 약 5만여 명으로 그 중 약 60%가 근로자 신분이었다. 2023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정책이 본격화 될 경우, 영어가 가능한 고학력의 인력을 제공할 수 있는 필리핀이 주요 대상국이 될 가능성이 크다.

V. 맺음말

취임 2년 차에 접어드는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예상과는 달리 빠른 속도로 두테르테 전 정부의 정책기조와 멀어지고 있다. 새정부 출범 초기부터 시작된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집권연합 균열 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고 있다. 양 진영 간의 대립이 잦아지고 있으며, 차기 대권을 둘러싼 경쟁이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경제정책은 두테르테 전 정부의 기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 코로나-19 종식과 더불어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경제 상황을 바탕으로 봉봉 마르코스 정부는 생활

물가 안정을 통해 민생을 챙기고, 국가 주도의 대형 인프라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경제발전을 견인하고자 한다. 반면 외교정책에 있어서는 친중반미 노선을 걸었던 두테르테 정부와는 반대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동맹외교를 강화하고 있으며, 중국과는 남중국해 해양 영유권을 둘러싼 분쟁의 심화로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필리핀은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 운영의 중심에는 제도보다는 인물이 있으며, 작동 원리로는 일반 대중의 의견보다는 유력 정치가문의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게 작용한다. 2023년 필리핀 정치에서도 이러한 특성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두테르테 정부에서 봉봉 마르코스 정부로의 정권 이양은 정치·사회 분위기를 탈권위주의적으로 변화시켰다. 또한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동시에 차기 권력에 대한 유력 정치가문 간의 경쟁이 시작되었다. 필리핀에서 외교정책 자체는 크게 대통령의 지지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 대중의 감정에 반하는 친중 정책을 펼쳤던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높은 지지도를 유지했던 것이 이를 말해준다. 오히려 경제성장이나 물가, 혹은 사회적 안정과 같은 실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이 대통령의 지지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 봉봉 마르코스 대통령은 취임 초기 중점을 두었던 생활물가 안정에 실패함으로써 국정 지지도에서 약간의 하락세를 나타냈다.

권위주의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에 대한 필리핀 대중들의 인기는 퇴임 후에도 여전하다. 이는 정치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대중들이 이기적인 정치엘리트 세력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이익을 대변해 줄 강력한 지도자를 희구하는 성향에 기인한다. 필리핀 정치에서 대중적 지지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현직 대통령의 입지와 정권 안정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이권을 중심으로 모인 의원들이 여론에 따라 다음 선거의 득실을 계산한 후 진영을 바꿀 수도 있다는 점과 여론을 빌미로 정권에 등을 돌릴 수 있는 군부의 존재는 의회

탄핵이나 군부 쿠데타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다. 마르코스 진영과 두테르테 진영 간의 권력 투쟁이 본격화되면서, 최근 일부 친두테르테 성향의 군부 세력이 봉봉 마르코스 정부를 전복하려 시도한다는 소문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Reganit 2023). 이는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살아 있음과 집권 2년차를 맞이하고 있는 봉봉 마르코스 정부의 불안정한 입지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동엽. 2008. “필리핀의 정당정치와 민주적 정치발전.” 『동남아시아연구』 18(2): 33-67.
- 김지연. 2023. “한-필리핀 2차 해양대화 개최...해양안보협력 MOU 체결 합의.” 『연합뉴스』 10월 1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1012168100504> (검색일: 2023.12.22.)
- 김효정. 2023. “주필리핀 韓대사관, 中의 남중국해 ‘불대포 발사’에 ‘우려’.” 『연합뉴스』 8월 11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811093651504> (검색일: 2023.12.22.)
- 서경교. 2018. “태국과 필리핀의 정치변동: 민주화의 후퇴? 재권위주의화?” 『동남아시아연구』 28(4): 77-114.
- _____. 2020. “필리핀 민주주의와 정치: 필리핀 대중들의 인식과 평가” 『동남아시아연구』 30(3): 121-154
- 이창호. 2024. “필리핀 관광부 지난해 입국 해외 관광객 전년대비 65만명 증가, 한국인 1위.” 『뉴스코리아』 1월 9일. <https://www.newskorea.ne.kr/news/articleView.html?idxno=9926> (검색일 2024.1.10.)
- 정법모. 2023a. “필리핀 민주주의: 가문정치의 지속과 사회경제적 변화없는 민주화.” 『KDF 민주주의 리포트』 제86호.
- _____. 2023b. “필리핀 2022: 전통적 가문 정치의 귀환과 코로나 19 이후의 경제회복 과제.” 『동남아시아연구』 33(1): 281-315.
- ANC. 2023. “Economist Winnie Monsod reacts to Maharlikar Fund proposal.” ANC. May 31. <https://www.youtube.com/watch?v=4kigXn5B-ps>. (검색일 2023.12.20.)

- Borja, Anthony Lawrence A. 2023. "Political Illiberalism in the Philippines: Analyzing Illiberal Political Values." *Asia-Pacific Social Science Review* 23(1): 63-78
- Calonzo, Andreo. 2023. "Disapproval Grows on Marcos' Handling of Philippine Inflation." *Bloomberg*. Nov. 3.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03/disapproval-grows-on-marcos-handling-of-philippine-inflation> (검색일 2023.12.24.)
- Camba, Alvin, 2023. "From Aquino to Marcos: political survival and Philippine foreign policy towards China." *Journal of Contemporary East Asia Studies*, doi.org/10.1080/24761028.2023.2281165
- Curato, Nicole. 2016. "Flirting with Authoritarian Fantasies? Rodrigo Duterte and the New Terms of Philippine Populism."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47(1): 142-53.
- Curato, Nicole. and Y. Y. Yonaha. 2021. "Rodrigo Duterte: macho populism and authoritarian practice (born 1945). K. Larres, (ed.) *Dictators and Autocrats: Securing Power across Global Politics*. London and New York: Taylor & Francis. 384-98.
- De Leon, Dwight. 2023. "Martin-Sara Duterte rift: House leaders back Romualdez, decry 'political bickering'." *Rappler*. June 8. <https://www.rappler.com/nation/house-leaders-back-martin-romualdez-decry-bickering-rift-with-sara-duterte/> (검색일 2023.12.20.)
- Galvez, Daphne. 2022. "Marcos says Sara Duterte wants the job of Defense chief." *Inquirer.net*. Jan. 24. <https://newsinfo.inquirer.net/1544480/marcos-says-sara-duterte-wants-to-be>

defense-secretary. (검색일 2023.12.20.)

Galvez, Daphne. 2022. "VP Duterte orders probe into 'pricey, outdated' laptops, asks COA for 'fraud audit'." *Inquirer.net*. Aug. 15. <https://newsinfo.inquirer.net/1646892/vp-duterte-orders-probe-on-pricey-outdated-laptops-asks-coa-for-fraud-audit> (검색일 2023.12.21.)

Gregorio, Xave. 2021. "Political clans form coalition to support Bongbong-Sara tandem." *Philstar*. Nov. 25. <https://www.philstar.com/headlines/2021/11/25/2143769/political-clans-form-coalition-support-bongbong-sara-tandem> (검색일 2023.12.20.)

Inquirer Mindanao. 2021. "Sara Duterte's meeting with Imee, Bongbong fuels tandem talks in 2022 polls." *Inquirer.net*. May 30. <https://newsinfo.inquirer.net/1438998/saras-meeting-with-bongbong-imee-fuels-tandem-in-2022-polls#ixzz8MOZokT7l> (검색일 2023.12.20.)

Juego, Bonn. 2017. "The Philippines 2017: Duterte-led Authoritarian Populism and Its Liberal-Democratic Roots." *Asia Maior* 58: 129-64.

Kreuzer, Peter. 2020. "Patronage Democracy and the Politics of Coercion: Characteristics and Legitimacy." *A Patron-Strongman who Delivers: Explaining Enduring Public Support for President Duterte in the Philippines*. Peace Research Institute Frankfurt. 4-18.

Macasero, Ryan. 2023. "House members tell Duterte: Stop the threats." *Rappler*. Oct 15. <https://www.rappler.com/newsbreak/inside-track/house-representatives-tell-rodri-go>

duterte-stop-attacks/ (검색일 2023.12.22.)

Magaluz, Jean. 2024. "Pulse Asia: Marcos, Duterte approval ratings bounce back in December." *Inquire.net*. Jan. 8. <https://cebudailynews.inquirer.net/549731/pulse-asia-marcos-duterte-approval-ratings-bounce-back-in-december>. (검색일 2024.1.10.)

Magsambol, Bonz. 2023. "After backlash, Sara Duterte drops bid for P650-M confidential funds in 2024 budget." *Rappler*. Nov. 9. <https://www.rappler.com/philippines/office-vice-president-drops-request-confidential-funds-2024-budget/> (검색일 2023.12.21.)

Manalang, Ashlee. 2023. "Confidential Funds Controversy Erupts in Philippines." *Geopolitical Monitor*. Oct. 18. <https://www.geopoliticalmonitor.com/confidential-funds-controversy-erupts-in-philippines/> (검색일 2023.12.21.)

Maxwell, S. Royo. 2018. "Perceived Threat of Crime, Authoritarianism, and the Rise of a Populist President in the Philippines." *International Journal of Comparative and Applied Criminal Justice* 43(3): 207-18.

Palatino, Mong. 2023. "Ex-Philippine President Rodrigo Duterte Hints at Return to Politics." *The Diplomat*. Nov. 27. <https://thediplomat.com/2023/11/ex-philippine-president-rodrigo-duterte-hints-at-return-to-politics/> (검색일 2023.12.21.)

Ragasa, Faith Y.W. 2023. "EXPLAINER: Why onions in PH are now more expensive than meat." *CNN Philippines*. Jan. 11. https://www.cnnphilippines.com/news/2023/1/11/High-prices-of-onions-in-PH-explainer.html#google_vignette (검색일 2023.

12.22.)

- Reganit, Jose Cielito. 2023. "Destabilization rumors vs. gov't won't do PH any good - solon." *Philippine News Agency*. Nov. 7. <https://www.pna.gov.ph/articles/1213135> (검색일 2024.1.10.)
- Regilme Jr. S. Sontino. F. 2021. "Contested Spaces of Illiberal and Authoritarian Politics: Human Rights and Democracy in Crisis." *Political Geography* 89: 102427. doi.org/10.1016/j.polgeo.2021.102427.
- Serapio, Manolo Jr. 2023. "Philippines' Marcos Removes Month-Long Cap on Rice Prices." *Bloomberg*. Oct. 4. <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23-10-04/philippines-marcos-removes-cap-on-rice-prices> (검색일 2023.12.22.)
- Shugart, Matthew S. and John M. Carey. 1992. *Presidents and Assemblies: Constitutional Design and Electoral Dyna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torey, Ian James. 1999. "Creeping Assertiveness: China, the Philippines and the South China Sea Dispute." *Contemporary Southeast Asia* 21(1): 95-118.
- Strangio, Sebastian. 2023. "China Warns Philippines Over US Access to Military Bases." *The Diplomat*. March 14. <https://thediplomat.com/2023/03/china-warns-philippines-over-us-access-to-military-bases/> (검색일 2023.12.22.)
- Ta-asan, Keisha B. 2023. "Resilient consumption seen to drive growth." *BusinessWorld*. March 3.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3/03/03/508242/resilient-consumption-seen-to-drive-growth/> (검색일 2023.12.21.)
- Teng, Carla. 2023. "Asia's Political Dynasties: Philippines." *Asia*

필리핀 2023: 집권연합의 조기 균열과 친미 동맹외교의 강화 127

Media Center. May 24. <https://www.asiamediacentre.org.nz/features/asias-political-dynasties-philippines/> (검색일 2024.1.10.)

Thompson, Mark. R. 2016. “The Specter of Neo-Authoritarianism in the Philippines.” *Current History* 115(782): 220-225.

(2024.1.12. 투고, 2024.1.25. 심사, 2024.2.9. 게재확정)

<Abstract>

The Philippines 2023: Early Cracks in the Ruling Coalition and Strengthening Alliance Diplomacy with the U.S.

Dong–Yeob KIM
(B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e Bongbong Marcos government, which enters its second year in power in 2023, is rapidly moving away from the policy stance of the former Duterte government. In addition, the ruling coalition with the Duterte camp is showing an early crack. The economic policy of the Bongbong Marcos government is not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former Duterte government. The Bongbong Marcos government seeks to take care of the people's livelihood by stabilizing consumer prices, and actively promote large-scale state-led infrastructure projects to drive economic development. In terms of foreign policy, alliance diplomacy that centered on the U.S. is being strengthened, and the relation with China deteriorates due to intensifying disputes over maritime sovereignty in the South China Sea. President Bongbong Marcos' assumption of power lead the Philippine political and social atmosphere from an authoritarian to a liberal one. The public support measured by the popularity survey in the Philippines affects the incumbent president's political power and regime stability in various ways. The existence of still

popular former President Duterte and his daughter Sarah Duterte is a factor that might destabilize the Bongbong Marcos regime.

Key Words: Bongbong Marcos, Sarah Duterte, Philippine politics, Philippine economy, Philippine foreign policy, Korea-Philippines relations

